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1월 10일(월) 제 3204호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또 논란 '특혜 의혹'

한승우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감정평가 편법·기여금 축소 의혹 전주시민 손해 4천억원 넘어" 한 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전주시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시공사도 정해지기 전에 승인이 난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또 다 시 논란과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쓸리 고 있다.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 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 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 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 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 됐다"고 전제한 뒤 "그 결과 시민이 입 을 손해는 4천억원을 넘는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 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 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 천억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고,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도 덧붙였다.

특히 공공기여금 가운데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키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

가 지침 등에는 교통개선비를 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하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는 논

2천528억원 중 약 1천30억원을 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 을 강조했다.

한 의원 등은 이달중으로 시민 300 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



한승우 시의원

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 계자는 "감 정평가는 법 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

가 수행했고,

관련법령에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 인 ㈜자광은 6조2천억 원을 들여 도 청 인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20만 ㎡에 2030년까지 관광타워와 상업시 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지을 예 정이다.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대한방직 부지 개발 '끊이지 않는 잡음'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 리에서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

복됐다"고 전제한 뒤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천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옛 대한방직 부지 <사진=전주시>

수년간 캠틱 예산 어디다 썼나 전주 드론축구 카르텔 '예산 농단'

조국당전북도당7일성명'직격' 시민 혈세로 '그들만의 리그' 키워 산업도스포츠도 없는 '유령사업' 시 "감사 권한 없다" 의혹 방패막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수백억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전 주시 드론축구 월드컵은 구경 온 관광 객은 없고 선수는 시비 지원으로 '거저 모셔 온'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며 공 허하고 충격적이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는 예견된 참사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지 자체(전주시)-협회(대한드론축구협 회)-기술원(캠틱)-사업자'로 이어지는 공고한 특권 카르텔이 시민의 세금을 사유화한 예산 농단이다"고 비난했다.

조국당은 "이 카르텔의 정점에는 '캠 틱'이 있다. 캠틱은 전주시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드론축구 사업을 사실상 독 점했다"며 "드론축구 사업에 전주시는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본 래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다가 뛰어든 캠틱에 전주시는 시 소유인 '첨단벤처 산업단지' 운영 위탁을 20년 가까이 독 점하며 76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을 받아 갔고 공개입찰로 전환된 후에도 3차례 연속 선정된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의 결과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협회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거나 지 원받은 기업은 '캠틱' 뿐이지만 캠틱 구 성원은 거의 변동 없이 '그들만의 리그' 를 공고히 했을 뿐이다"고 전제한 뒤 "이런 와중에 캠틱 내부적으로는 되려 기존 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 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 울러 "시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 법인의 독점적 이익과 비자금, 해외 골프 접대 의혹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고 덧붙 였다.

조국당은 "200억 원이 투입된 신설 경기장은 활용도가 극히 낮아 텅 비어 있고 이는 애초에 행시를 주관해야 할 협회가 경기장 설립으로 인한 수요와 활용에도 무관심하다는 증거다"며 "더 심각한 것은 산업통상부 인가 단체라 는 이유로 '산업 육성' 예산은 받아 갔 /장정철 기자 지만, 정작 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한 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 드론축구 월드컵 '지자체-협회-기 술원 사업자'로 이어지는 특권 카르텔이 시 민 세금을 사유화했다"고 비난했다.

<사진=전주시>

화체육관광부 인가와 대한체육회의 가 맹으로 프로 리그를 결성하려는 노력 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두 전·현직 시장에 걸쳐 수백억 을 쏟아붓고도 '산업'도, '스포츠'도 아 닌 알맹이 없는 유령 사업만 남았다. 이 는 '스포츠'는 명분일 뿐, '산업 R&D 예 산'을 독점하기 위한 구조임을 강력하 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리 의혹이 터지자, 이 카르 텔은 '꼬리 자르기'로 대응했고 협회 사 무국장은 해임됐지만, 협회장이자 캠 틱 원장은 대한드론축구협회 회장직 만 사임한 채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 직을 유지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승 진까지 했다"며 "지난해 시의회가 회계 감사를 요구했지만, 캠틱은 이를 거절 했고 전주시는 "직접 감사의 권한이 없 다"며 적극적인 협조로 위장한 '방패막 이'를 자처했다는 논리다.

120억 원을 지원한 기관에 지속적인 대처도 하지 않으며 '감사 권한이 없다 는 말을 어느 시민이 납득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전라북도당은 "이 사태를 '특권과 반칙'이 '청년의 기 회'를 박탈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 주시의회는 120억 예산과 200억 경기 장 사업 전반에 대해 전주시를 대상으 로 한 즉각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라" 고 요구했다.

또 "수사기관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를 중단하고, 비자금의 사용처(해외 골 프 및 성 접대 의혹)는 물론, 몸통인 캠 틱 지도부와 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주시 지휘부의 유착 의혹까지 성역 없 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한 해 마무리' 정례회 36일간 돌입

오늘 제 423회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2026 예산안 심사 도민제안 창구 운영 13건 반영 문의장"내실있는심사추진할것"

전북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

2025년도 마지막인 이번 회기는 10 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6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결산 추경 및 새해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



문승우 도의장

의·결의안 을 통해 정 부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 이며, 둘째 날인 11일부

터 20일까지 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 견을 제안·제보받아 활용하고자,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3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 분 자유발언 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을 실시하고 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 대정부 건 안을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 오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예 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 입한다. 이후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 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 한 회기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검토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을 통해 주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점검 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면밀 히 검토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 감해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추진하 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사 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전북도, 겨울 한파·폭설 축산재해 대응체계 가동

내년 3월까지 대책상황실 운영 피해예방예산160억투입 309개 농가 우선 사전점검 완료 가축보험·시설보강 지원 강화

전북도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 기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 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 상황 모니터링, 기술지원, 긴급 대 응과 복구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기상특보 발령시 즉시 비상 후시설이나 위험요인은 시군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를 공유해 피해 발생 시 현장 확인 과 피해조사, 손해평가, 복구 계획 수립 기술 안내도 병행 중이다. 등을 단계적으로 신속 추진한다.

받을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점 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설과 한파에 취 약한 309개 농가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축사 지붕·지지대 안전성, 보온 과 단열 상태, 전기·난방 설비 이상 여 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폭설 피해 사례가 있는 지역은 점검 대상을 한층 넓혀 재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 단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노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과 실시간 즉각 보수 조치하도록 하고, 농가 스스 로 예방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전북자치도는 특히 재해 영향을 크게 다. 도는 이번 겨울 축산재해 예방에 총 16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 이 중 약 140억 원은 가축재해보험 지 원에 편성해 자연재해, 화재, 사고로 인 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축사 화 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과열 감지장치 설치 등 '축산화재안전 시스템 개선사 업'에 5억 원, 지붕 보강과 보온재 보완, 제설 자재 확보 등 시설 보강과 현장 대 응력 강화를 위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특히 전북도는 한파시 급수시설 동파 방지, 난방기 과열 차단, 누전차단기 점 검, 축사 내 먼지 제거 및 배선 정리, 제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 설 장비 확보 등 농가가 즉시 적용 가능 한 예방 요령을 문자, SNS,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지속 전파할 계획이다.

>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국장은 "동절기 축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지고 복구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대 비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기상특보 발령 시 축사 점 검과 전기·난방기 관리 등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의원 "새만금 K-푸드 허브, 정부가 속도 내야"

7일 농해수위 예산안 전체회의서 전북 현안 농어민 예산 반영 촉구 "국가정원 등 적기 추진해야" 강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 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 의 삶을 좌우할 주요 농업 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 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재 명 정부가 전북을 K-푸드 중심지 만들 겠다고 공약한 만큼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 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 원의 신속한 추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또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주체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사업들이 적기에



이원택 의원

한다고 덧붙였다.

화 및 예산 확 주문했다. 대를 통해 조 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아울러 입 주기업이 요구하는 수출관련 물류체계 다. 정비와 인증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이어 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국가정 비 절감을 위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 자생산단지 조성 등 새만금 일원에서

을 '한국식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 콩 수매예산 2만 톤 추가 반영, 전북지 으로 명칭 변 역 콩 융복합단지 추진, 심화되는 농업 경하고, 수출 재해 대응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속 지원 기능 강 추진 및 신규지구 지정 등을 강력하게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새만금산단 입 직을 확대 개 주기업의 2026년 본격 가동으로 증가할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부지 매립 및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새만금항 신항 항로준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조했

> 격포 여객선터미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신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생산량 2위에 김 산업 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업경영비 급등과 다. 소득감소에 따라 농가의 생계와 농업

적했다. 이를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 친 환경농업의 2배 확대를 위한 직불금 현 실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재 개, 4H 및 생활개선회 등 지원 복원 등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미흡하게 반영된 농업 현안들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의 적기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전 북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반 또한, 연간 16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과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 릴 수 있도록,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먹 거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

/서울=김영묵기자

이재명대통령 지지율 APEC 성과에 6%p 급등

갤럽조사긍정평가63% 민주당 40%vs국민의힘 26%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 령 지지율이 60%대로 급등했다.

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 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 사한 결과 전주보다 6%포인트 급등 한 63%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4% 포인트 떨어진 29%,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 는 민주당 지지층(96%), 성향 진보 층(88%),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 다. 지층(67%)과 보수층(56%)에서 두 드러졌다. 중도층은 72%가 긍정적, 21%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 30대와 60대에서 60%대, 20대와 70 격 높임'(12%), '핵추진 잠수함 승 대 이상에서 약 50%다.

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 교'(30%), '경제/민생'(13%), 'APEC 6%) 등을 답했다. 성과',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직무 능력/유능함', '서민 정 책/복지'(이상 4%), '추진력/실행력/ 속도감', '주가 상승'(이상 3%) 순으 했다. 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 의힘 26%,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 으며 의견 유보는 18%였다. 각 4%,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 층 24%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 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7%가 더 하면 된다. 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 도층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1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 권자가 32%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민주당 지난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6 47%, 국민의힘 18%로 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 급등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매우 도 움됐다' 49%, '약간 도움됐다' 25% 등 도합 7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됐 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 은 결과(745명, 자유응답) '대미 관 세 협상 성과'(18%), '국가 홍보/국 인'(9%), '경제에 도움', '각국 정상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과 만남'(이상 7%), '국가 간 교류', '엔비디아 AI 협력/GPU 확보'(이상

>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7%,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6%로 부정평가는 13%에 그쳤고, 12%는 의견을 유보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지금까 지 잘했다' 55%, '잘못했다' 26%였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 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모집

최장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정착지원금·농지·융자 등 패키지

농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청년농업 우선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우대 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 보증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 선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업인을 선발해 정착을 돕고 있으며, 내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차 모집으로, ▲만 18세 이상~40세 미 획이다. 만(1985~2008년생) ▲독립 영농경력 3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지·시설 매입 및 임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 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지은행 임대

접수는 이달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북도는 올해 도내 410명의 청년농 년에도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이번 모집은 전국 2,000명을 선발하는 2026년 1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

김신중 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청년농 년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업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소득 14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 마련하는 것이 미래 농업 경쟁력의 핵 을 열어갈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북도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 <사진=전북농업기술원> 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심"이라며 "전북에서 새로운 농업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년比 5주 빨라…예방접종 독려

전북도, 하수서 인플루엔자 조기 검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2주차(10월 12~18일) 이후 도내 하수 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 로 검출되고 있다며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 등 4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을 방에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대상으로 매주 하수 시료를 채취해 코 권고했다. 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44종의 병원체를 분석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을 수행해 지역사회 내 감염 병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 대 적 감시체계"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자 응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해 첫 검출 시점인 47주차(11월 중순) 했다.

보다 약 5주 빠르다. 또한 호흡기 바이 러스 감시에서도 44주차(10월 27일 주 간) 기준 인플루엔자 양성률이 16.67% 로, 전년 같은 기간 1% 미만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 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 군산, 익산, 수를 강조하고, 예방접종이 중증화 예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실제 환자 발생 이 전의 유행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 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인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42주차 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대응 부터 검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 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 /김은지 기자



전주시 '2025년 공공비축미' 총 2151톤 매입

지난해 매입량比 319톤감소

전주시는 2025년 공공비축미 △건조포 대벼 1585톤 △산물벼 213톤 △가루쌀 353톤 매입 계획을 지난 7일 밝혔다.

시의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은 지난 해 매입량보다 319톤 감소한 총 2151톤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미 감소 이유로 시는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시장격리곡 매입물량이 없어 작년 87% 수준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별 매입량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매입에 들어설 계획이다.

매입된 미곡은 전주시 정부양곡관리창 고(4개소)에 분산되어 비축될 예정이다.

일반벼 2품종 '신동진', '참동진', 가루쌀 1 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서, 농업인은 품종 '바로미2'로 확인됐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산지 쌀값을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 말에 결정된다.

시는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 출하 직 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한다. 후 포대 40kg 조곡 기준당 4만원의 중간

특히 올해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정산금을 지급한 후 오는 12월말 최종 일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향후

> 농가는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공 공비축미 품종 외 다른 품종 벼가 출하되

> >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중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증료 지원신청은 올 연말까지 가능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 증보험(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 입한 전주시 소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아울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연 소득



기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 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다.

단, 법인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 go.kr) 확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 문하거나 정부24(plus.gov.kr) 또는 주 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 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안골·서원·꽃밭정이노인복지관 '작은 나눔, 큰 행복' 바자회 열어

수익금 전액 저소득 노인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

전주지역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바자회가 연 일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안골 노인복지관(관장 박수진)과 서원노인복 지관(관장 석초스님), 꽃밭정이노인복지 관(관장 전석복) 등 3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나눔, 큰 행 복 바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골노인복지관은 지난 6 일, 서원노인복지관은 6일과 7일, 꽃밭정 이노인복지관은 7일 각각 바자회를 열었 다.

건어물, 젓갈류, 주전부리 등 다양한 물 게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품이 판매됐으며, 따뜻한 곰탕을 비롯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또 이벤트와 체 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 노인 지원 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이번 노인복지관 바자회에서는 곡류와 점도함께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 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할 계획이다.

전주시 노인복지관들은 앞으로도 지역 과 함께하는 나눔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 는 등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복 지공동체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석초스님(서원노인복지관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 르신 복지 향상과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이 번 바자회를 준비해 주신 복지관 관계자 분들과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정혜민 기자

전북대병원 '전국 의료인 대상' 전문 학술대회 열어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실습 교육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은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이 대한췌 장담도학회에서 주관한 2025년 추 계학술대회에서 전국 주요 대학병 원 및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췌 장·담도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한자 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학술 대회다.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 며 진료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교 류의 장이다.

전북대병원 내시경실의 ERCP(내시경 역행담췌관조영술)팀은 이번 학술대회 의 올바른 사용법, 환자 안전 관리, 시술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이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주관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의 교육 세션에서 ERCP 관련 시술 기구 전·후 간호 과정 등 실제 임상에 필요한 ERCP는 십이지장 내시경을 이용해 담

관과 췌관 안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X선 영상으로 담도와 췌관의 상태를 관찰하 는 검사 및 치료 시술이다.

전북대병원은 매년 학회 및 전문 학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의료진과 간호사들 의 임상 역량 강화와 지식 공유에 앞장서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내시경실 전문성 과 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훈 소화기내과장은 "다양한 학술 활동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임상 역량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 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의료 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 으로 의료진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전 문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지난 7 장을 찾아 인증해오고 있다. 일 '2025년 신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을 진행했다.

전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에서 모범을 보 지함께 마련했다. 인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을 위해 '현장 확인 및 철저한 심사' 을 거쳐 안전수준이 높다고 인정된 사업

이날 덕진소방서는 스타벅스 전북대병 원DT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표지' 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부착은 소방안 착과 함께 영업주 도지사 표창 수여식까

스타벅스 전북대병원DT점 안전관리우 전주덕진소방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수업소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9 일부터 2027년 11월 8일까지 2년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지난 7일 경기도 오산시와 충남 보령시, 충북 증평군 등 3개 지자체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 노하우 전국에 확산

"전주에서 노하우 배웠어요"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 범사업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오산시와 충 남 보령시, 충북 증평군 등 3개 지 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 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전욱희 오산 시 희망복지과장과 오미경 보령시 경로복지 팀장, 조미정 증평군 보 건소장,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 교 교수 등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참석자들과 전 주시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정보 및 각 분야별 사업 내용을 공유했 다. 특히 전주시 특색사업인 △건 강의료안전망 △7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 △노인일자리사업을 활 용한 통합돌봄서포터즈 등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질의응답도 이어졌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 7월 부터 올 연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 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 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 봄 고위험군 2000여 명을 대상으 로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 활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는 2026년 3월부터 는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으로, 돌봄 대상 은 65세 이상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환경청 '토양안심주유소' 운영실태 강력점검

적정운영 및 제도준수 여부

전북지방환경청 김호은 청장은 관 내 토양안심주유소 대상 운영실태 점 검을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한 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 청장의 실태여부 점검은 지정・ 관리 중인 토양안심주유소 대상으로 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제 도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것이 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누 유경보장치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권장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한 주유소를 말한다.

24년말 기준 전국 지정·관리 업체 는 1032개소이며 전북지역에는 37개 소다. 토양안심주유소에 지정되면 5 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총 7개소 대상으로 유류저 장탱크·주유기 연결부 등 누유여부· 누유경보장치정상작동·파손여부·자 체정기점검 실시 여부(1회/월) 등의 집중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지 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 변경 및 고장 방치 시 등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3회 심포지엄' 개최

전국 최초 개원한 예수병원 장애친 화 산부인과가 제3회 심포지엄을 열 렸다.

지난 7일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 은 장애 여성 출산 지원 및 정신건강 에 대한 제3회 심포지엄 열고 학술적 다. 논의를 이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장애친화 의료지원센터 개회사는 홍상기 센터장이 맡았다.

홍 센터장은 "장애 여성의 안전하 고 존중받는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하 다"고 전했다.

이어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 해 힘쓸 계획이다. 경환 과장 '주산기 우울증' 주제 강연

이 뒤따라 진행했다.

그는 △임신 △출산 시기의 정신적 어려움 △조기 발견의 중요성 △치료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산모 정신건강 지원 체계 확립"을 강조했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장애 여성과 가족이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다.

예수병원은 매년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연구 교류를 확대하며 장애 친 화적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푸드테크 산업 기술지원 강화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중심기업수요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집중

장은 전북자치도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42 얼라이 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바이오진흥원은 기업방문 및 간 담회 등을 개최하며 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오고 있다.

더불어 기술적 애로사항과 수요를 면 밀히 파악하고 기업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아울러 기업과 연계한 대체식품 개발 등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이오진흥원은 '식물성 소재 이 용한 오징어 젓갈 개발'을 발굴해 오징어 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소재를 개발 하며 기능성 저염・저칼로리 오징어 젓갈

양념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30~40대 젊은 소비층·어린 아이도 즐길 수 있는 젓갈제품을 선보여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 고구마말랭이 제조 전문기업 기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 해결을 위해 '고구마 업사이클 소재를 활 용한 항산화 증류주 생산기술 개발' 과 제를 함께 기획·제안하며 성공의 성과를

>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고구마말랭이 생산 과정에서 폐기되는 껍질과 겉속살 등 40% 이상 부산물을 업사이클 소재로 활용해 항산화 기능을 갖춘 증류주로 고 부가가치화 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식품 자원 활용과 지역 농산물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 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 바이오진흥원은 식물기반 식품 포럼,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 포럼,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전북-네덜란드 공동 포럼 등을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식품 기 술 및 대체 단백질, 스마트 푸드 제조 등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자치도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 전략적 육 성을 위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

스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강 고 밝혔다.

화하고, 국내·외 푸드테크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해 전북이 대 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 이은미 원장은 "푸드테크42 얼라이언 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김영태 기자

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오고 있다.

전주상의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 전시회 참관

건축·자재 산업 최신 트렌드 비즈니스 파악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유일 건축 설계 자재 중심 B2B·B2G 전시회 '한국건축산 업대전 2025'(KAFF 2025)에 참관단을 지 난 6일 파견했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참관은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원기 업의 최신산업에 대한 동향 파악과 정보 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건축·자재 산업의 최신 트 경쟁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렌드와 비즈니스 기회를 접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다양한 자재 부스, 설계기술 세미나, B2G 상담관 등으 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축・인테 리어·IT·건설기술·기계설비·정책홍보· 작품전시 등이 다뤄졌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 중심의 전시 ·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접하고, 회원사 간 네트워 크 강화 및 최신산업 트렌드 공유가 이뤄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매년 국내 유명 전 시회·박람회를 참관하며 주요 산업별 전 시회 참관과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



전주상공회의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유일 건축 설계자재 중심 B2B-B2G 전시회 '한 /정소민 기자 국건축산업대전 2025'에 참관단을 지난 6일 파견했다.

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 1조 원' 달성

산지팸투어동행등 MD 지원 신뢰도 확보 주력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 다. 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 장'이 올해 역대 최대 거래실적 1조 원 을 달성했다.

대면 거래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농수 (77%↑)을 기록했다. 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목표 5 천억원 대비 35% 초과한 6737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목표 1조원을 조기 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T는 올해 거래목표 1조원 달성을 위

거래 알선 △맞줌형 컨설팅 및 팸투어 를 통한 산지 직거래 활성화 △성출하 롯데온 등과의 협력으로 영향력 있는

대비 3804개소에서 5272개소로 확대 (39%↑)됐으며 일평균 거래 금액도 18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 역 4천만원에서 상승한 32억 6천만원 탕으로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 원 을 활성화하고 유통 효율을 높인 혁신

이 같은 성장의 밑바탕에는 온라인도 매시장 MD의 밀착 지원이 함께했다.

담당MD는 생소할 수 있는 온라인도 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매시장의 비대면 거래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산지 팸투어 동행, 지원사업 해 △부류별 MD(상품기획자)를 통한 1:1 설명 등 거래를 확대하는 데 주력

기에 맞춘 특화상품 개발 △카카오톡, 은 "온라인도매시장 MD와 함께 산지 팸투어에 참여한 이후, 발품 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 구매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 없이 전국 산지의 우수 상품을 손쉽게 소싱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며 "앞 그 결과, 거래 참여 업체 수는 작년 으로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달성을 목표로 나아갈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 화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유통인이 참

목소리를 반영해 청과, 수산 등 79개 다.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향후에는 거래 의사결정에 도움을 경기도 소재 온라인셀러 비케이물산 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거래정보 공개 를 확대하고 거래중개인과 품질관리 사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전문성과 상품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

홍문표 aT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 1조 원 조기 달성은 다양한 aT는 올해의 1조 원 달성 실적을 바 거래주체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 경쟁 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또한, 거래 품목 확대에 대한 현장의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

/정혜민 기자

농진청,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 개발

악취 저감제 해충 유인제 등 친환경자재로 재탄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은 순창군 순창읍 소재 순창군다함께돌 봄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19년 개소한 순창군다함께돌봄 센터는 초등학생 25명을 센터에서 안전 다. 하게 보호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초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개소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 된 물품들의 교체를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 안전문제가 우려됐던 아동들의 개인 로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 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사물함과 오래된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진행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또 학습용 의자, 독서용 빈백소파, 붙

박이 수납장 등을 지원해 보다 나은 생 활환경을 조성했다.

오픈식에는 순창군 조광희 부군수, 순 창군의회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순창 군가족센터 문정현 센터장, 순창군다함 께돌봄센터 배은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

전상익 부행장은 "지역사회 환원의 일 환으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실시 하고 있는 공부방 지원 사업을 통해 아 동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과 희망을 키 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돼 기쁘게 생 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과 상 전북은행에서는 철제로 돼 있어 그동 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순창군 순창읍 소재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 방 제21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겨울철 안전점검 "집중"

이정환 총괄본부장 부안관내 농업 취약지역 찾아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겨울철 한파·폭설에 의한 농업 피 해 예방을 위해 부안군 농업인을 찾

내 주요 시설하우스 및 농업 취약지 다. 역을 찾아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취약지역 현장을 찾은 이 총괄본부 장은 △비닐하우스 보강지주 설치여 부 △결속끈 상태 확인 △전기시설 점검 △재해 대비 예비자재 보유 현 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기에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 을 직접 청취하며 재해보험 가입 중

요성과 농작물 병해 예방 관리 요령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그동안 전북농협은 관내 92개 농 축협을 대상으로 재해 사전대비 현 장점검실시를 지도해 왔다.

나아가 영농재해대책상황실 24시 간 가동하며 신속한 피해파악과 복 이 총괄본부장은 지난 6일 부안관 구 지원에도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

>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사전 관리 및 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 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신고 및 복구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 겠다"고 말했다.

> > /정소민 기자

10월 K-푸드+ 수출 전년 대비 '5.7% ↑'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실적)은 라면(21.7%↑), 조제품 기타 농식품부)는 2025년 10월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누적, 잠정)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112.4억불을 림(22.1%↑)이다.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 율이 높은 권역은 중동(GCC, 20.4%↑), 유럽연합(EU+영국, 14.8%↑), 북미 일본, 미국 순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13.9%↑) 순이었다.

7~10월 동안에는 미국 시장의 수출 성장세가 주춤(0.6%↑)하는 사이, 중동 7.7%↑)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음료(80.3%↑), 소스류(33.9%↑)가 높 며 "정부는 연말까지 정책자금 지원, 은 성장률을 보였고, 중화권에서는 라 물류·통관 등 수출 애로 해소 등 수출 면(62.9%↑), 조제품 기타(19.4%↑), 기업 지원을 강화해 금년 케이-푸드 플 포도(122.7%↑) 수출이 크게 증가했 러스(K-푸드+) 수출 목표 140억불이

동기간(7~10월) 전년 동기 대비 증 밝혔다. 가한 주요 품목(3천만불 이상의 수출

(13.6%↑), 커피조제품(21.3%↑), 김 치(6.4%↑), 포도(50.9%↑), 아이스크

라면은 전 세계 매운 볶음면의 인기 농식품(K-푸드⁺)은 85.9억불로 전년 가 지속되는 가운데, 젊은층을 겨냥한 인기 K-콘텐츠 활용 마케팅과 온·오 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중국, CIS,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은 "우리 제품의 우수한 품질 경쟁력 (23.5%↑)과 중화권(중국·홍콩·대만, 을 토대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10 월 말 기준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80.7%↑), ↑) 수출이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혜민 기자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설비 준공인가

테이팩스·주왕산업 운영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테이팩 스와 ㈜주왕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 에 대해 지난 7일 개발행위 준공인가

개발행위 준공이 승인됨에 따라 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했다. 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테이팩 스는 182.4kW, ㈜주왕산업은 709.9kW 규모로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주왕산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생 산·납품하는 업체로 2024년 조달청 우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조달물품(태양광 발전설비 부문)에

지정된 유망기업으로, 이번에 설치한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잉여전 력을 판매할 계획이다.

㈜테이팩스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 야에서 사용되는 특수테이프를 생산하 는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실현을 위해 자가소비 방식으로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 은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 이 RE100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 움이 되도록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

/정혜민 기자

5

남원용성고 '농업계학교 지원사업' 선정

도내 농업계고 중 유일 5억원 지원 첨단실습 시설·장비 구축 탄력

남원용성고등학교(송한득 교장)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농 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업은 농업계고교에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예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 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농업계고 73개 교 중 6개교가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남원용성고가 유일하게 선정돼 5억원 가겠다"고 전했다. 을 지원받는다.

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실무 능력 중심의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 고, 농업계고 재학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첨단실습시설 보완 및 구축에 탄 력을 받게 됐다.

특히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 전북특 별자치도 농업정책과, 남원시 등 교육 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성과를 이 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한득 교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 2026년 농업계고등학교 교육지원사 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 서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교육부 재구조화 추진 계획에 따라 학과의 교육과정이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습실 환경 조 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강화해 나

남원용성고는 이에 따라 신기술·신 재구조화(전북글로컬특성화고 신규 지 스마트팜과·드론팜테크과·키페플라워



남원용성고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편 남원용성고는 2025년 직업계고 정 포함) 사업에 선정, 2027년도부터 과로 학과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최성민 기자

🗑 교육·연구 분야 공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전북대학교가 지난 7일 NI Korea, 엔아이스퀘어와 함께 AI 및 정밀 계측·분석·제 어 자동화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AI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NI Korea 등 2개 기업과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7일 NI Korea(사장 정구환), 엔아이 스퀘어(대표 박준도)와 함께 AI 및 정밀 계측·분석·제어 자동화 분야 의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강국 실현을 국가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전북대가 AI 융합 교육과 연구 생태계를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 다.

협약에 따라 NI Korea와 엔아이스 퀘어는 전북대에 LabVIEW 등 다수 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믹 볼륨 라이 선스 200카피(2년 구독형, 학생 설 치 옵션 포함)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AI 및 PC 기반의 정밀 계측, 분석, 제어 자동화 등 첨 단 공학 분야의 실습과 연구에 활용 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는 이를 기반으로 AI 융합 트랙 실습환경을 고도화하고, 산학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협약 기관과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기증받은 소프트 웨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 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 라며 "NI Korea와 엔아이스퀘어와 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AI·소프트웨 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경 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최성민 기자

'교육행정자료 검색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검색할 수 있는 '교육행정자료 검색기' 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5회 적 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 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 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다양 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탁 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행정 우 수공무원'으로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7건으 직원 1명, 기관 1건 등이다.

복잡한 교육행정 정보를 쉽고 빠르게 는 △복잡한 교육행정 정보, '교육행정 자료 검색기'로 쉽고 빠르게!(교육행정 8급 이재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 교육행정자료는 본청, 직속기관, 교 육지원청, 학교 등의 주요 행정 데이터 를 모은 종합 자료로, 올해 처음으로 '교육행정자료 검색기'를 도입해 복잡 한 교육통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이 이룬 미래,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 시설 건립(교육행정 6급 임대식), 장려

로 5급 이하 지방공무원 5명, 교육공무 영상으로 회원가입률 '쑥쑥'(교육행정 7급 이명준) △학부모도 안심, 학생도 먼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분야에서 안전-학교 승하차존 조성(교육행정 7 김희정)이 각각 선정됐다.

교육공무직원은 △학생 정서·행동특 성검사 2차 연계 실효성 제고: 절반의 성과에서 전면 관리로 도약(전주교육 지원청 임상심리사 소성진) 기관은 △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성 확보와 교원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우수상은 △공감이 만든 공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민주시민교육과)이 차 지했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

상은 △고령 퇴직교직원도 쉽게! 안내 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상여 금 최고 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

최우수 및 우수로 선정된 상위 2건 급 양우진) △학교 디지털 인프라, All- 의 우수사례는 전북교육청을 대표해 in-one 통합지원 체계 구축(전산 6급 2025년 하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제출된다.

> 이홍열 감사관은 "급변하는 교육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적 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 > /최성민 기자

익산 오산남초서 식중독 증상 집단 발생

학생 17명·교직원 1명 증세 호소

익산시 오산남초등학교에서 학생과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초 환자는 이날 오전 10시 30 분께 학교 비상대책회의 후 보건소에 신 고됐으며, 오전 10시 40분에는 관할 교 육지원정에 위상관 승상 의심 사실이 유 선으로 전달됐다.

구성해 오후 12시 30분 관계기관 대책회 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를 열었고, 오후 1시 기준 학생 17명과

이 중 학생 1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들은 주로 설사와 구토 증세 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 교직원 등 1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 년 2명, 4학년 2명, 5학년 2명, 6학년 1명 으로 파악됐다.

> 이날 학생 17명과 조리종사자 2명 등 인체검사 19건과 함께 급식보존식, 조리 도구, 정수기 음용수 등 총 27건의 환경 검체가 확보됐다.

교육지원청과 익산시청, 보건소 등 관 계기관은 이날 오후 3시 학교운영위원 전북교육청은 즉시 식중독 협의체를 회 협의를 거쳐 급식 중단 및 대체식 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검체 검사 교직원 1명 등 총 18명이 유증상자로 집 가 진행 중이며,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병행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80명 선발

자율·정책연구 수행 17일까지 지원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수 대상지를 선발한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공고 난 7일 밝혔다.

3명, 초등교사 51명, 중등교사 26명 등 총 80명이다.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수업혁신 및 학력신장 성과, 학생 생활지도, 학교 구성 원 간의 관계 형성 능력 등을 평가해 연

특별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는 지원서 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고, 대상자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지 등 제출서류를 갖춰 유치원과 초·중학교 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 심사, 3차 학교교육 기여도 심사 등을 거 며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활동 지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수학교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오는 쳐 내년 1월 2일 최종 연수 대상자를 발 원을 통해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17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립유치원 교사와 국·공·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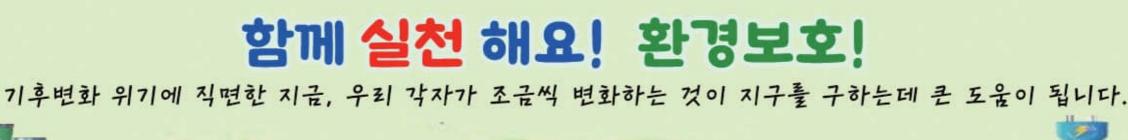
또, 도내 학교 근무 실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국·사립학교 재직 교사 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활성화를 위해

1차 적격여부 심사, 2차 연구수행능력 비를 4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라 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하겠다"고말했다.

전북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자율연구와 시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로 실교육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도내 4년제 대학과 정책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

>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우리 교육청 연구과제를 다양화하고, 1인당 연구활동 수업·학습 및 학교교육력 향상에 이바지 /최성민 기자





'제2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연장 전시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표 기을 축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익산시는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국화축제 연장 전시에 총 3만여 명이 방문했 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76만여 명이 다녀간 공식 축제에 이어 가을의 정취 를 더 많은 방문객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련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백제문화의 화 려함을 재현한 백제금종 한지등과 높이 8m 대형 봉황 조형물, 천사의 계단 빛조형물 등 다채로운 전시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으로 축제장이 중앙체육공원에서 신흥공원까지 확장되면 서 규모와 품격이 한층 높아졌다.

신흥공원은 수변을 따라 조성된 물길정원 과 야간 산책로, 유이숲 체험원 등이 조성돼 자연 친화적인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방문객 들의 발길을 모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국화축제가 시민 과 관광객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분양된 화분국화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아름답게 피 어나 익산의 가을을 다시 물들이길 바란 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0일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경영비 부담 ↓

정읍시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 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 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을 접수받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 해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업을 육 성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으로, 이 자격은 유기질 비료가 실제 공급되는 시기까지 유효하게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본인의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만약 여러 시안 군에 농지가 분산돼 있다면, 각각의 농지소 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개별로 신청해 야 한다.

지원 비료는 유기실비료와 무숙유기실비 료(퇴비) 두 종류다. 유기질비료는 20kg 포 대당 16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 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많은 관심 바 란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반드시 기한 내 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함께 나누는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성황'

군산시가 지난 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 연장에서 '군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 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 역 내 학습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 해 마련됐으며,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이용자·종사자, 평생교육 관계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성 과 영상 시청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 회 우수작 시상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장 애인 평생교육기관 9개소가 참여해 댄스・ 난타·우쿨렐레·태권도·합창 등 다양한 장 르의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성과공유 회는 장애인 학습자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 다"라며 "앞으로도 배움의 벽을 낮추고, 누 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환 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내장산 단풍 '다음 주 절정'

우리나라 자생 단풍 11종 서식…7일 기준 절반 가량 물들어

가을 단풍의 으뜸 명소로 꼽히는 정 읍 내장산이 다음 주중 가장 화려한 붉 은빛을 뽐낼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절반 가량 물든 내장산 단풍이 다음 주중에 절정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장산은 가을마다 그윽한 붉은 빛으 로 물드는 산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 가 어우러져 매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은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단풍나무는 잎 의 갈래 수나 모양에 따라 종류가 다양 하다. 신나무 잎이 3갈래로 나뉘는 반 면, 고로쇠나무는 5~7갈래, 당단풍은 9~10갈래로 갈라지는 등 저마다의 특 징이 뚜렷하다.

내장산 단풍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우리나라 자생 단풍 11종의 서 식지이기 때문이다. 당단풍, 좁은단풍,



털참단풍, 복자기를 비롯해 고로쇠, 왕 고로쇠, 신나무 등 다채로운 단풍나무 가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자아낸다.

이곳의 단풍은 잎이 아기 손처럼 작 고 고우며 진한 붉은빛을 띠어 '애기단 풍'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 섬세한 모양이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다.

내장산 단풍 감상의 백미는 단연 일 주문에서 내장사로 이어지는 '단풍터 널'이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과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이 조화를 이뤄 깊은 가 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아기 손 같은 '애기단 풍'이 붉게 타오르는 지금, 내장산은 1 년 중 가장 눈부신 옷을 입었다"며 "단 풍터널의 장관과 우화정의 고즈넉함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가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24시간 악취 감시한다

악취 상황실 11~4월 탄력적 근무체계 유지

익산시가 현장 중심의 악취 민원 처 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쏟 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하절기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 총 1,576건의 악취 민 원을 처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악취상황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 월 동안 전문인력 4명이 투입돼 평일 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 고 24시간 악취를 감시했다.

이 기간 야간 51건을 포함해 총 115 건의 시료포집을 실시했으며, 악취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한 7개 사업장에는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등으로 시설 개 선과 악취 저감을 유도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축산악취 1,206건 (77%) △산단 악취 252건(16%) △기타 118건(7%)으로 집계됐다. 상황실 근무 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악취 역추적 다. 시스템을 활용해 발원지를 신속히 파 악하고, 즉시 현장 출동해 조치했다.



특히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축사나 가 축 분뇨 재활용시설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을 선정하고, 감시반 2명이 상시 순찰을 실시해 악취 발생 시 즉시 저감 조치들 시행했다.

산업단지 지역은 야간 조업장 점검과 악취측정차량·모니터링 시스템을 병행 해 지역별 맞춤형 감시체계를 구축했

또한, 악취 저감 행정에 대한 시민 신 계획이다. 뢰도 향상과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에

도 힘썼다.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 가는 맞춤형 악취간담회'를 추진하고, 축산농가와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해 악취 행정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제 시, 완주군과 함께 악취저감 상설협의 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해 정책 자 문과 현장 대응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 축하고, 실질적인 악취 대책을 추진할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해누리노인복지관 신규 개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고령 통합돌봄 체계 본격화

군산시는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 파트(LH) 내에 조성된 해누리노인 복지관의 개관식을 지난 7일 개최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 장을 비롯해 송영환 LH전북지역본 부장, 사회복지 관계자, 지역 어르 신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야노인복지관의 분관인 해누 리노인복지관은 연면적 1,196㎡ 규 모로 조성돼 내부에는 주방, 다목 적 강당,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자복지주택 입주 어르신과 인근 주 민을 대상으로 주거인프라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건강·여가·평생교육 을 아우르는 생활복지 모델을 구축 하고,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 형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누리노인 복지관 개관은 어르신들이 보다 가 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뜻깊 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6개월간 5천여건 '성과' 정읍시, 계절근로자 환송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마무리

올해 시범 운영돼 1817개 농가에 5068건의 인력을 중개하며 농가 만족 도를 높인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 사 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동을 마친 필리핀 근로자 38명을 위한 환송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에서 열 린 환송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샘골 농협 허수종 조합장, 농협중앙회정읍시 지부 김순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들은 농가의 일손을 도왔던 계절근로 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읍에 머문 기간을 추억할 수 있는 포토북 등 기념 품을 전달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학수 시장은 "한 해 동안 무더운 날씨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밝 정읍시는 지난 6일 약 6개월간의 활 은 모습으로 농작업에 임해준 근로자 들 덕분에 농촌에 큰 힘이 됐다"며 "계 절근로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 사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정 읍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좋은 기억으 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유관기관 협력 체납차량 '강력 단속'

익산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 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가 이뤄지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6일 오후 전북특별자 다. 치도청,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과 함께 체납차량 과태료 징 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총 20명의 인력과 6 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각 기관의 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징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을 펼쳤다.

시는 체납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

시는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번 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 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 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세정질서를 확 립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립요양원 '전북 첫 가족휴게실 마련'

다목적실 증축 마무리 가족과 숙식 가능해

정읍시가 14억원을 투입한 정읍시립 요양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마무리하 가족휴게실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마무리했다. 비롯한 도·시의원, 입소어르신 및 입소 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쪽이 원하는 날에 어르신과 가족휴게실

유공자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컷팅, 시설 에서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예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세 2억원 등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연면 를 회복할 수 있는 정서안정서비스를 제 적 248㎡ 규모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1 층과 2층으로 분리됐던 생활실을 2층으 고 지난 6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증축 로통합, 어르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 으로 전북 최초로 기족과 숙식이 기능한 또한 전북 최초로 입소자와 기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휴게실 조성을

정읍시립요양원은 앞으로 입소자 가 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 이번 다목적실 증축공사는 특별교부 의 입소환경은 물론 가족과의 유대관계 공할 수 있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100 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 어르신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더 따뜻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책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사례관리자 개입 역량 강화 방안 모색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7일 군산 지들의 직무 효율성과 정서적 안정을 시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사례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드 림스타트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시례관 리사, 외부 슈퍼바이저가 참석했다.

특히 외부슈퍼바이저로 군산시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강영진 팀장이 참 여, 중독 관련 사례 접근 방식과 알코 올·흡연 등 아동·가정 내 중독 문제의 개입 전략에 대한 자문과 논의를 진행 했다.

강영진 팀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현장 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개입 전략과 조언을 제시해 실무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사례관 이번 회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리자의 개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 제 사례 공유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 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아동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슈퍼비전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 에서 마주하는 고난도 사례 해결을 위 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라며, "앞으로 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례관 리사의 개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위기아동 가정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 완료

석탄동2·와리3등 4개 지구총 1,610필지

익산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 구로 지정된 석탄동2·와리3·망성화산· 가좌 등 4개 지구 총 1,610필지(62만 일 밝혔다.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 통

불부합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어 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계획이다.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공람 절 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이후 전북특별자치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 4,177㎡)의 측량을 완료했다고 지난 7 당 4개 지구를 사업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경계조정 협의 △지적확정 예정통지 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익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 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분쟁을 예 방하고, 토지 활용가치와 거래 신뢰도 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 시는 일필지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지 이용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익산=최준호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국비 확보 '총력'

국회서 김병기 원내대표 한병도예결위원장만나 지역핵심사업건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발 전을 위한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하며 국 회 단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 을대교(국도77호선) 총사업비 증액 건 의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197억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 공원 조성사업(100억원)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 사 업 등 핵심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 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사업(47,919억원)은 전북 서해안권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관 광·물류산업의 도약을 이끌 핵심 SOC 사업이다. 심 군수는 한반도 U자형 철도 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사업이 5극 3특 기반의 국가균형발전 실 현과도 큰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해안 관광벨트 완성의 핵심축 인 노을대교(국도77호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을 건의했다. 노을대교 조 기착공은 현 정부 대선공약에도 반영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균형 발전 핵심사업이지만, 현재 사업비가 부 족해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증액이 반드 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어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

이 사업은 고창군 심원면 염전부지에 국내 최초 카누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역사공원 조성사업(100억원)을 건

의했다. 국가사적인 용계리 청자요지는 전북자치도에서 가장 오래된 청자 생산 지로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가마터보 호각 건립이 시급한 상황으로 가마터보 호각 건립 착공을 위한 공사비를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주요 핵심사업들은 단순히 고창만의 과제 가 아니라, 전북 서남권 전체의 성장축 을 형성하는 국가 균형발전 핵심 사업 이다"며,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이 적 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와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밀 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지평선학당 고3 종강 "열정의 피날레"

수험생 도전 응원

(이사장 정성주)이 지난 6일 지평 선학당 강의실에서 수능을 앞둔 고3 수강생들과 강사진 등 3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학당 고3 종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종강식은 재단 상임이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학당 부원장 격려사, 고3 학생의 답사. 합격 기 원 선물 전달 등을 통해 그동안 열 심히 공부해 온 학생들을 응원하 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종강식에 참석한 고3 수험생 대 표는 "그동안 지평선학당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적 향상 에 도움이 많이 됐고, 힘든 순간 강 김제시는 (재)김제사랑장학재단 사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 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최미화 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지평선학당과 함께하는 시간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해준 학 생들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흘 린 땀방울과 노고에 큰 박수를 보 내면서 오는 13일 수능 시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성료

73개팀·435명 참가 "스포츠도시도약최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김제 실내체육관에 서 열린 2025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 수권대회(초등)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 음으로 열린 전국 초등 엘리트 배드민 턴대회로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회장 이용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 드민턴협회(회장 심용현)와 김제시배 드민턴협회(회상 이병순)가 수관했으 리며 뜨겁게 날궜다. 며, 전국에서 73개팀 435명의 초등학생 으로 진행됐다.

거운 땀방울과 힘찬 기합 소리 그리고 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고 말했다.



가해 대회기간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의 도 대회기간 동안 초등학생 선수들의 뜨 와 함성이 김제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 시 김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장을 찾은 학부모 등의 응원과 함 대회를 통해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어

성, 박수갈채가 김제 실내체육관을 울 갈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돼 배드 민턴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대회는 어 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유아 흡연위해예방 체험관' 운영

눈높이 맞춤 체험 교육

고창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 진개발원과 연계해 관내 3~5세 유이를 대상으로 '유아 흡연위해예방 이동체 험관'을 운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어린이집 11개 기관, 250여 명의 유아가 참여했

호기심이 많고 모방 행동이 활발한 3~5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흡연의 유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 련됐다.

밴드, 노스모킹별을 지켜줘' △'노담 OX퀴즈' △파라슈트와 금연 공을 활용

한 신체활동 '담배몬스터를 잡아라' △ 흡연예방 동요 및 율동 등 유아의 눈높 이에 맞춘 체험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담밴드' 동화 가정학습 교재 를 제공해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 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했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담배의 해로움과 건 강의 소중함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 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기 부터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 교육 프로그램은 △동화구연 '노담 는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장=백송규 기사

부안군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청렴 중요성 인식 도모

부안군은 지난 6일 소속 직원들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여 명의 직원이 참가했으며, 청탁금지 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 률을 중심으로 한 퀴즈 풀이가 진행됐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를 구성해 공직 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렴 지식

을 점검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또한 부서별 응원전을 함께 진행해 대상으로 군청 2층 대강당에서 2025 부서 간 화합을 도모하고, 대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이번 대회에는 부서장을 포함한 110 청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는 모 든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일상 특히 실제 업무에서 미주할 수 있는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신규시책·국가예산 발굴 최종보고회

K-컬처 세트장·변산 하섬 스카이워크 등 10건 선정

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2026년 신 론 형식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규시책 및 2027~2028년 국가예산 신 밝혔다.

시책 109건, 국가예산 58건)의 사업 가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운데 1차 서면심사(국별 소관부서)와 2 차 대면심사(부군수 주재)를 거쳐 선정 대응하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인 부안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 된 19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와 토 실행으로 연결될 때 지역의 미래가 달

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조성, 변산 하섬 스카이워크 설치, 미래 형 재난대응시스템 '부안 AI 지휘훈련 이번 보고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 장' 조성, 귀농·귀촌 VR체험 플랫폼 조 부했다. 는 정책 발굴과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 성, 격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등 총 10

창출을 목표로 발굴된 총 167건(신규 건(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이

권익현 군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라진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단 심의를 통해 새만금 K-컬처 세트장 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부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운곡습지 가을 축제' 성황

운곡습지 생태적 가치 전북 삼천리길 사업 홍보

고창군이 지난 8일 고인돌공원 일원 기행사인 '북적북적! 담비랑 반디랑 운 곡습지 가을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 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공동 주 최하고,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 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운곡습

추진 중인 '전북 삼천리길' 사업을 홍보 를 출발해 람사르습지인 운곡습지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 주민과 관광객, 관계자 등 300여 명 적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에서 운곡습지 페스티벌&삼천리길 건 이 참여해 다채로운 생태체험과 문화 행사를 즐겼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서는 '운곡습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습지 공로상 및 습지장학금 수여, 습지마을

실천규약 선서 등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전북 삼천리길 걷기'

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전북도가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고인돌유적지 한 바퀴 도는 왕복 5㎞ 구간을 걸으며, 이날 행사에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습지의 생태

>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운 곡습지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기 고, 습지와 삼천리길의 가치를 되새기 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방향을 모 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 의지 다져

최덕림 강사 초빙 강의

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활성화 직장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강 사로 선정된 최덕림 강사(前 순천시 안전행정국장)를 초빙해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혁신 WHY & HOW 할 것인 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WHY-왜 적극행정인가?, $\triangle HOW$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triangle 실$ 제 사례 공유를 통한 공직자의 자존감 회복 △공공 헌신 다짐의 흐름으로 전 말했다. 개됐으며, 강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를 추진한 실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실행 사례를 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6일 시 생하게 전달해 공직자들의 공감과 호 응을 이끌어 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 되는 이 유'보다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는 실 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천형 적극행정 태도를 확산시키고, 향 후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사이며 2024년 국가인재개발원 명강 인센티브 지급 등 후속 시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김희옥 부시장은 "행정 현장에서 '어 렵다'는 말보다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태도가 시민의 신뢰를 만들어 간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각 부서가 스스로 해법을 제시하는 김제형 적극행정 문 화가 확산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 > /김제=온봉기 기자

'제15회김제평생학습한마당' 800여명학습자참여속마무리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배움나눔의 학습 문화 정착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15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지난 7일과 8일(2일간) 많은 시민들의 참여 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모두의 배움으로 더 빛나는 김제'를 주제 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배움·발표·어울림의 3대 테마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장이 됐 다. 123개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 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갈고닦은 학습 성과 를 시민들과 나누며 '학습기부 문화'의 새 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과 함께 김제시 평생학습관 및 여성회관 수 강생들의 작품발표회, 학습동아리를 비롯 해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청소년 어울마 당 등 62개 팀 800여 명의 학습자들이 2일 간 쉼 없이 릴레이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달리는 청춘형 모두배움터 체험버스'를 비롯한 이색 체험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 었다. 성인문해 디지털 키오스크 체험과 문 해학습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성인 문해 거리시화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 께 진행돼 깊어가는 가을 나들이를 나온 시 민들에게 특별한 학습의 추억을 선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배움을 나누면 행복 과 기쁨은 더 커진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나를 위한 학 습이 모두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움을 함께 나눠주신 시민학습자 여러분께 깊은 감시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계화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하루, 한동네' 운영

부안군 계화면(면장 김화순)은 복지 사각 지대 해소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찾아가 는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의 일환으로 '하 루, 한 동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한 동네' 사업은 매주 경로당을 직 접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복지제도 안내,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더불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독 자원순환 교육을 함께 진행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일반쓰레기·음 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을 안내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방법 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화순 계화면장은 "하루 한 동네 사업은 단순한 복지상담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환경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적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 재직자 회계 처리 능력 향상 지원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지역 기업 재직자 의 실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역 량 강화교육(회계)을 지난 6일 고수복합문 화체육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재도약 기업(氣UP)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역 기업 실무자들의 회계·재무 역량 부족 문제를 해소,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회계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총 1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고창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행정·경영지원·총 무·관리직 등 실무 전반에서 회계 이해가 필요한 직무 군이 교육에 참여했다.

회계 기초 개념부터 재무제표 이해, 비용 수익 분석, 부가세 및 연말정산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고, 회계 경험이 적은 실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시례 중심 방식으로 운영됐다.

양치영 센터장은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 을 위해서는 채용·지원뿐 아니라 재직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할 계획"이 라고 덧붙였다. /고창=백종규 기자

'인구 10만 시대' 완주군, 지방자치 우수상

국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인구우수정책선정…역량호평

완주군이 인구 10만 시대를 성공적 량을 높이 인정받았다. 으로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일 국회 사랑재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대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서비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수상 확충 △완주형 인구정책 △귀농귀촌 의 영예를 안았다.

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굴된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정 책을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 명을 기록했다. 다.

전국 30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정책 책 통합 전략'은 단순히 현금 지원 정책 을 발표한 가운데 완주군은 지속 가능

활성화 등 5대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개 지속가능한 통합적 인구 생태계를 구 축했으며, 지난 5월 주민등록인구 10만 명을 돌파하고 10월 말 기준 10만 490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완주형 인구정

에 머무르지 않고, 정주, 일자리, 문화・ 한 지방발전 모델로서의 인구정책 역 관광, 돌봄 등 4대 핵심 생활 기반을 통 합적으로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 군은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 확 귀촌 인구의 완주 정착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인구 10만 달성 은 새로운 시작일 뿐, 미래 100년 먹거 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15만 인구 달 성과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달성이라 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 했다.

> >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동

국비 9억4800만원 확보 사업 추진 17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9억 48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 해 오늘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 된 종이지적의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으로, 실제 지형과 지적 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 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14.8%가 불일치 상태이며, 남원시도 전체 32만 필지 중 18%에 해 로 39개 지구 3만4493필지의 지적불부 당하는 5만7000여 필지가 대상이다.

활용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한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소유자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조정금을 지급 민원을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남원시는 2026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순 차적으로 열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하거나 징수한다.

남원시는 2012년 농원지구를 시작으 합지를 정비해 전국 2위의 실적을 거뒀 이 사업은 첨단 위성측량(GNSS)을 다. 특히 산내면 신흥마을은 실상사 소 유지 위에 형성돼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지적재조사를 통 부담이 없으며, 면적 증감이 생길 경우 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며 74년 만에 취하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 진 기반을 마련한 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주민설명회는 주천면 용담마을을 시 작으로 열린다. 시는 사업 목적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국회서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건의

최영일군수타지자체와공동건의 국비 부담률 40→80% 상향 요청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7일 서울 여 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 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 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 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 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 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 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작용한다.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 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 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고 있어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 리로 요청했다.

지방소멸위기 속 '역주행성장'

3년 연속 인구 순유입 정책 '성과'

며 전북 4대 도시권으로 자리매김하고

만 490명으로 전월보다 114명 증가하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성장 기반을 평가된다.

며 지속적인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있다.



담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사진=순창군>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대가 반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 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이 같은 문제는 순창군뿐 아니라 함

최 군수는 국회 면담 자리에서 "기본 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7개 군 대표들은 국비 부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 께 선정된 타 지자체들도 공통으로 겪 담률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한목소 /순창=박지헌 기자

최영일 군수는 7일 국회를 찾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 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 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 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 급하면서도 다른 주요 지역 사업을 병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국

완주군 '전북 4대 도시 도약' 현실로…정읍과 '비견'

읍시(10만 740명)가 소폭 많지만, 완주

이는 유희태 군수가 민선 8기 출범

대와 정주여건 개선, 맞춤형 인구정책

다진 의미 있는 성과다.

완주군이 정읍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 간 정읍시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완주군의 주민등록 인구(내국인)는 10 로 도내 도시권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여, 36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기업유치 확

이는 군 단위 지역 중에서도 3년 이 등을 통해 '전북 4대 도시 도약' 비전이

군은 올해 5월 10만 명 인구 달성 이 이미 완주군은 9월 말 기준 외국인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 포함 인구가 10만 5,250명으로, 같은 기 며, 삼례·봉동·이서 등 도심권 지역은 물론 구이·소양·고산 등 농촌지역까지 10월 말 기준 내국인 기준으로는 정 균형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2035년까지 15만 인구 달성을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군은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과 성장세 목표로 한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 비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가속화(4대 도시 도약) △ 경제성장 고도화(전국 군단위 GRDP 1 위) △행복성장 지속화(행복지수 1위 도시) △읍면성장 특성화(주민자치 1 상 연속 인구 상승세를 유지한 사례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번지) 등 4대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9개 지회 경기 공연 등 화합 순창군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이어졌다.

순창군 귀농귀촌인 한자리에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7일 국민체육센터에 서 성황리에 열렸다.

귀농귀촌인 250여명 참여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가 주 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 꾸며졌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식전공연 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회식, 민 속경기, 장기자랑, 시상식 및 석식 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특히 귀농귀촌인 250여 명을 비롯해 순창군민, 군 관계자,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내 귀농 귀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확 했다.

식전에는 밸리댄스와 가수 공연 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조동옥 협의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손종석 군의회 의장, 전국귀농귀촌중앙회

정용준 회장의 축사와 격려사가

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에서는 순창군 내 9개 지회 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가 준비한 민속경기와 장기자랑이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자랑에는 총 18개 팀이 참가해 노래, 춤, 퍼 포먼스를 선보였다.

조동옥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 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농업인 대잔치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 개최 장터·체험마당·1,000인 밥상 등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 성철)는 남원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남원농산물의 우 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11일 까지 이틀간 사랑의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농업인 대찬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판매장터 및 시 민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제30회 농 다. 장터에서는 남원 각지에서 생산

판매금액의 약 30%정도를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인 예정이다.

또한, 우리농업을 사랑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1,000인의 밥상(비빔밥)을 준비해 고 품질 남원농산물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인의 날의 주인 공인 농업인들과 30주년 기념 떡 케 이크를 잘라 나눌 예정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제30회 농 업인의 날을 맞이해 지역 농업의 발 전을 위해 헌신한 분을 분야별로 4명 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진행 계획이 선정 농업인대상을 수여하며, 사과품 평회 결과 전시·쌀 품종별 식미평가 되는 최고품질의 농산물이 판매되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전폭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시민 호응 속 조기 마감

의 높은 참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 에 따라, 올해는 14일자로 마감된다 고 밝혔다.

민 독서 활성화와 지역서점 이용 촉 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만족도 진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 는 93.5%로 전년(90.4%) 대비 3.1%p 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는 현재 시민 상승해 시민 독서문화 증진에 크게 1,226명이 참여해 총 2,137권의 도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구입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전 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조기 마감 은 시민의 독서 활동을 지원함과 동 하게 됐다.

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고 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문 $\,$ 있다. 신청 도서 수는 $\Delta 2023$ 년 1,900 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권, △2024년 2,058권으로 지속 증가 해 온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시민들 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활발한 이용 이 이어졌다.

또한 남원시 공공도서관은 지난 6~7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5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시 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만족도 조

시 관계자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시에 지역서점의 경영난 완화와 지역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해마다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 /남원=정하복기자

남원시, 이륜자동차 찿아가는 출장 검사 운영

남원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5년 하 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운영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25년 4월 28일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검사항목에서 제동장치·주행장치 등 19개 검사항목으로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교통안 전공단 검사소 1곳만 있어 읍·면지역 주민 들이 검사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검사 편의를 위해 18일 아 영·산내 19일 운봉·인월 20일 이백·송동 21일 대산·금지에서 출장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 진행되며, 아영면은 구)아영면행정복지 센터, 이백면은 치안센터 인근 공터에서 실 시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및 대형 이륜자동차(전기 이륜자동차 포함)로, 하반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차량 135대가 해당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 필증,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수수료 3만원 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출장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교통안전공 단 남원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

시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 과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운영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 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시민대학 완주캠, 비봉면서 원광대 협업 한방건강관리 교육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완주군 이 운영하는 전북시민대학 완주특화캠퍼스 가 지난 7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에서 '한의사가 알려주는 몸과 마음건강 관 리(체질별 한방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 다.

이번 교육은 비봉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 장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 진됐다.

교육은 협업대학인 원광대학교 한의학 전문가가 맡아 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방 건 강관리법과 마음건강 관리 요령 등을 실생 활 중심으로 강의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은 "비봉면 이장들 이 먼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주민 들과 공유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마 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 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소방·경찰·보건기관과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순창군은 지난 6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 에서 소방·경찰 및 보건기관 등과 함께 생 물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소규모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고 의로 살포해 살상이나 질병을 일으키고 사 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소량으 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보건의료원을 비롯해 전북 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순창경찰서·소 방서, 안전재난과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 여했으며,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 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 을 뒀다.

주요 훈련 내용은 △생물테러 대응체계 이론교육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다 중탐지키트 사용 및 검체 이송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온기곤 보건의료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체계적 으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대비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과 함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군이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실무 중점을 뒀다.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군 월평마을에서 실시됐다. 해당 방문해 재배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시설은 주민 주도형 최초·최대 규모 의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로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어 주목받 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 고 있는 곳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내년 농지법 개정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완주 에 따라 교육은 일선 담당자들이 관 련 농지법을 비롯해 영농 현장을 정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완주군은 농 확히 이해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 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여 명 을 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데

또한, 기후변화 대응작물로 주목받 영농형태양광 교육은 6일 전라남도 는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농장들도

유희태 완주군수는 "영농형 태양광 은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농촌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홍보 실시

임실군이 2025년 11월 상하수도 요금 감 면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군은 상수도 급수 조례 35조에 근거 하여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국가유 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수도 요금의 30%,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인 다자녀 계층에 상수도 사용량 10㎡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수용가가 각 읍 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 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못하 는 상황 개선 및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읍면 이장회보에 게재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요금 감면뿐 아니라 감면 대상자의 현행화를 통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감면 대 상자의 사망, 전출, 자격 제외, 현행 유지 여 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24회 영·호남 자치단체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성료

장수군은 지난 7일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제24회 영·호남 자치단체공무원 친선축구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호남권의 장수·진안·무주 군과 영남권의 함양·거창·합천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이 참 가해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정우 장수부군수, 최 한주 군의회의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이성철 장수군체육회장, 강오용 장수 군축구협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대 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장수군청 축구동호회(회장 황현철) 주관 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개회식, 축구경기,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본 경기에서는 영호남 6개 군 선수단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서로의 친목을 다지 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을 비롯한 영호남 6개 군 공무원 들은 2009년부터 올해로 16년째 축구대회 를 통해 각별한 인연을 다지고 있으며, 교 류를 통해 상호 간 협력벨트를 구축하고 지역화합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오는 12일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개최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12 일 오후 2시, 산약초타운 홍삼실에서 '사회 적경제의 실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주 제로 2025 진안군 사회적경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진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이번 행사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환 흐름을 공유하고, 진안군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를 진단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김기태 한국사 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아 '2025 대한 민국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 소장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의 의미, 정 부의 사회적경제 전환 방향, 지방의 대응 전략 등을 짚으며, 향후 사회적경제의 변화 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자료에서는 진안군의 사회적 경제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5 진안 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조사 결과와 시사 점'을 발표하고 진안군 사회적경제의 특징 과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김장페스티벌 댓글 이벤트 '큰 호응'

11월 4일~23일까지 참여자 50명 추첨 1만원상당 상품권 증정

김장의 계절 11월을 맞아 임실군이 주최하는 '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사전주문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는 가운데 김장축제의 매력을 널 리 알리기 위한 SNS 응원댓글 이벤트 도 덩달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 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김장페스티벌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참여 자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은 김장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20일 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11월 28일 SNS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SNS 댓글에는 "올해 김장은 임실에 서!", "치즈에 이어 김치맛집으로 소문 이 자자", "배추사러 임실 가자" 등 응 원과 기대감이 담긴 댓글이 이어지며 온라인 참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 고 있다.

앞서 진행된 치즈축제 댓글 이벤트에 이어 군의 온라인 홍보효과를 한층 강 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임실군이 주최하는 '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사전주문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김장페스티벌은 2016년 첫 개최 이후 하고 있다.

특히 청정임실에서 재배한 배추와 고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추 등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품질과 맛 이 뛰어나고 편리하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큰 일교차 덕분에 맛과 식감이 좋고 속 이 알차기로 유명해 해마다 입소문을 임실군에서 주관하는 이번 이벤트는 타고 대도시 소비자들의 주문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현장방문과 택 배발송을 통한 판매행사 사전 예약의 올해로 10회를 맞은 임실 아삭아삭 경우 11월 14일까지 가능하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 매년 방문객과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 마파크에서 개최되는 김장체험행사 사 전예약은 빠른속도로 마감에 임박해

판매가격은 절임 배추(20kg)와 양념 (10kg) 세트 품목 가격이 택배비를 포 함하여 전년도보다 2천원이 저렴한 19 무엇보다 신덕면에서 재배한 배추는 만3천원이며, (농)임실앤양념(주)에서 직접 수령할 경우 택배비를 제외한 18 만5천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 김장세트 주문 및 사전 예약은 (농) 임실앤양념(주) 전화(063-643-8949, 063-644-4289) 및 홈페이지(http:// www.imsiln.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1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장수군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 업' 신청을 오는 12월 11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이 월별로 지급된다. 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 초기 단계의 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영농 자금과 기 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영농경력 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예비농업인이 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영농활동비, 일반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일 수 있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정 지원 자격은 신청 연도 기준 18세에 도 내에서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350-2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 39세(1985~2008년생)의 청년 중, 농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

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 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 영농 기반 마 련에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촌 정 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 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평가 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선발대상자 가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고 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장수군 농업 책자금을 통해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 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63-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된 청년농업인 최대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진안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2026 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할 예정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최종 선발된다.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 제의 일환으로, 진안군은 이를 지역 실

고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거나 영농을 시작 다.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간 매월 90만~110만원의 영농정착지 정에 맞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사람 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영농 기반 이 머무는 농업현장 조성에 중점을 두 조성이나 생활 안정 등 농업 활동에 필

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 연 도를 포함해 최대 5억원 한도의 후계농 육성자금(융자)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안정 적으로 영농 기반을 다지고 지역 농업 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이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며"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일본 관광객 대상 K-로컬투어 진행

유엔투어리즘선정 세계최우수관광마을매력뽐내 무주자연문화식문화체험

무주군은 지난 6일과 7일, 일본에서 활동 중인 여행 작가와 여행사 관계자 다고 밝혔다.

운영하는 SNS 및 여행 전문 채널 등을 준계기가 됐다. 통해 무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떠오르는데 최고의 배추 생산지로 손 을 둔 것으로, 무주는 앞으로도 지역 자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세계 최 집히는 무주군 무풍면에서 직접 김치 원 보호와 주민 상생, 그리고 국제적 교 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기념한 것으로, '김장 담그기'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 문화재 '무주안성낙화놀이', 덕유산국 했는데, 소식을 기다리는 친구들과 빨

립공원 '어사길 걷기' 등 무주의 자연· 리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인문·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서 진행된 '김장 담그기'는 한국의 대표 식문화인 '김장'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역민 고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무주 투어 후 자신들이 과 함께하는 로컬여행의 매력을 보여

> 를 담가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라며 류를 통한 관광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재료 준비부터 담그는 전 과정을 촬영

야수다 요시코는 "한국의 가을을 느 낄 수 있었던 덕유산 어사길과 환상적 특히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무풍면에 인 야경을 볼 수 있었던 낙화놀이의 아 름다움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 도였다"라며 "역시 세계가 인정한 최고 등 30여 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 직접 느끼고, 케이 푸드(K-Food)의 본 의 관광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

> 이번 팸투어는 단기적인 관광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한·일 간 지속적인 로컬 요시 유키는 "한국하면 김치가 먼저 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접수

오는 19일까지 신청서 접수

임실군이 오는 19일까지 '2026년 원사업과 가구당 최대 5백만원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접수한 지원하는 주택 구입·신축 및 수리 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적응 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 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귀촌 교육 훈련비 지원, 귀농 소득사업 및 생 를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 산 기반 시설 지원과 주택 구입·신 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 및 수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원에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단독주 하다가 임실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택(19평형) 10호와 200평 규모의 최대 5년 이내의 세대주가 전입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작물, 임산물 있다. 등 소득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가

시설하우스 16동을 조성 중이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구당 최대 10백만원을 지원하는 귀

농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 시설 지

군은 사업의 적기 지원을 위해 11

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12

월까지 현지 확인을 통한 우선순위

또한,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일

지원사업이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주민건강·지역경제·환경 모두 챙긴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정책 포럼 개최

무주군은 지난 7일 무주군농업기술 센터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2025 년 무주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통합지원센 터와 무주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날포럼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 중심 먹거리 순환 체계 구 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먹거리 생산 농가와 영양교사, 소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박미향 팀장

의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상황 보고' 를 시작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이 해'를 주제로 한 지역파트너플러스 정 천섭 대표의 강의, 의성군의 '우수 지 자체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김인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 력과장은 "먹거리 정책은 주민 건강과 지역경제, 그리고 환경을 포괄한다"라 며 "무주군은 지역 먹거리 정책의 실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자원은 다시 지역 농업이나 환경에 환 원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 켜 먹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 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책 개선 촉구

이미옥의원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사진)은 지 난 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상포진 예방접 종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안군은 60세 이 우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상 주민에게 생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의학적 근거 변화에 따 사백신을 모두 지원해 주민이 선택적 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생백신 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은 예방 효과가 약 5년에 불과하고 고 진안군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정 령층은 접종이 어려운 만큼, 대한감염 학회도 사백신(싱그릭스) 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10년 큰 질환인 만큼, 군민 특히 어르신들을 이상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50만 원이 넘는 높은 비용 탓에 군민 들이 접종을 포기하는 시례가 많다"며 한 정책적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부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60세 이전 생



백신 접종자에 대 한 사백신 추가 접 종 기회 부여, △ 60세 이후 생백신 접종자의 재접종 기준 마련, △ 사

백신 접종비 일부 지원 또는 고위험군

또한, 남원시와 임실군은 생백신과 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옥 의원은 "대상포 진은 고통이 극심하고 치료비 부담이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 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농가소득 안정 도모 고품질쌀생산기반강화기대

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고, 최종 정산금은 수확기(10~12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매입을 통해 지 월)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지급 역 농가의 안정적인 쌀 판매를 지원하 할 계획이다. 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강화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지난 6일 번암면 외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매입 농가는 을 시작으로 △장계면·계북면(11일) △천천면(12일) △계남면(13~14일) △장수읍(14일) △산서면(24일~12월 한다. 3일) 순으로 읍면별 일정에 따라 진행

입물량은 3,851톤으로, 이 중 건조벼 1,981톤, 산물벼 1,870톤이 포함되며, 한 제도"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해담쌀' 두 품 정한 검사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종이다.

장수군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 말했다. 량은 3,851톤(건조벼 1,981톤, 산물벼

1,870톤)으로 매입품종은 신동진, 해 담쌀 2종이다.

군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40kg 장수군은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 당 4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

단,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 우에는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 매입품종을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품 종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최훈식 장수군수는 "공공비축미 매 입은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군 농민들 올해 장수군의 공공비축미 총 매 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신뢰받는 장수 쌀 생산에 힘쓰겠다"고

/장수=최진수 기자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군산 나운1동지사협, 고3 수험생 합격응원 선물 전달

군산시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 원장 이길란, 이삼석)는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 중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 3년 수험생 합격을 응원하는 선물꾸러미를 전달했 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선물꾸러미는 나운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장 김승수)에서 후원한지정기탁금(180만 원) 으로 마련했다. 꾸러미에는 수험생 합격기원 및 취업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합격엿, 영양제, 담요 등 선물꾸러미 24세트(180만 원 상당)를 알차게 마련하여 취약계층 가정 고 3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 24명에게 전달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학생은 "이렇게 정성들여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삼석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과 취업준비 생 모두를 응원한다"라며 "남은 기간을 차분하 게 준비해서 시험 당일에 그동안 갈고닦은 실 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좋 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황등원광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50만원 기부

익산시 황등면에 지난 7일 지역사회의 관심 으로 모아진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이날 황등원광어린이집(원장 정영미)은 황 등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50만 원을 기탁했 다.기부금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에서 열린 '황등시민을 위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바자회 현장에는 저렴한 가격의 판매 부스와 다양한 체험 부스, 먹거리 코너 등이 운영됐다. 특히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 역 주민 130여 명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 했다.

정영미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한 뜻깊은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 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국 장애인체전서 진안군 선수들 활약 빛나

(주)한덴 김병원 대표, 임실군에 500만원 기탁

전민재금3·김정순금1 최은지동3개등획득

지난 달 31일부터 이번 달 5일까 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서 진안군 전민재 선수가 금메달 3개, 김정순 선수가 금메달 1개, 최 은지 선수가 동메달 3개를 획득했

전민재 선수는 지난해 대회 3 관왕에 이어 올해도 여자 육상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전북특별

"임실의 발전 바라는 마음"

임실군은 지난 5일, 지역기업 (주)

한덴 김병원 대표가 지역사회 발전

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

혔다. 김 대표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기부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주)한덴은 임실읍에 위치한 낙농

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 전문 기

업으로, 치즈 제조 원료 공급을 통

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임실N치즈

지역 상생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보여줬다.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100m, 200m, 400m에서 모 두 금메달을 휩쓸며 2년 연속 3관왕의 위업을 달성 했다. 그는 장

애인 육상 국가대표다운 기량으로 다시 한 번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다.



은지 선수는 수영 여자부 접영 50m, 평 영 100m, 배 영 100m에서 각각 동메달

걸었으며, 최

을 차지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

전춘성 진안군수는 "무더운 여 또한 김정순 선수는 파크골프 름 동안 땀 흘려 훈련한 결과가 값 붙였다.



안군의 위상 을 높여준 선 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새로 준공된 반다비 체육 센터가 선수들의 훈련과 체력 향 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

/진안=전길빈 기자

자치도와 진



김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나눔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 원회(위원장 최선열)가 지난 7일 '2025년 사랑 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치를 직접 담가 나누 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김장나눔 행사는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 여해 여름내 직접 재배한 배추 500포기를 버 무려 차곡차곡 김치통을 채웠다. 이날 담근 김 치는 독거노인, 경로당, 저소득 가정 등 관내 100여 가구에 전달됐다.

최선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 순히 김장김치를 담그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온정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임실군은 지난 5일 지역기업 (주)한덴 김병원 대표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 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종원동경영어영농조합대표,부안에 200만원기탁

부안군은 지난 7일 이종원 동경 인으로 쿠팡・우체국쇼핑・지마켓 밝혔다.

이종원 대표는 지난 2024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를 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대표는 "농업이야말로 지역을 지 농업인의 모범적인 나눔 사례로 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목받고 있다.

을 기반으로 서리태, 백태, 팥 등 말했다. 잡곡류를 생산·유통하는 농업 법

영어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고향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확대하며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 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이종원 동경영어영농조합법인 "노력한 성과를 다시 고향에 환원 동경영어영농조합법인은 부안 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부안=신상수 기자



서성환 신원케미칼 대표, 임실에 100만원 기탁

신원케미칼의 서성환 대표가 지난 5일 임실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대한 애정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신원케미칼은 기타 화학물질 및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 하게 생각하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원 출신 인 서 대표는 전북 각 시·군에 의 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탁도 그 일환으로 임실

전주시 소재 화학제품 유통기업 군을 직접 방문해 진행됐다. 임실 군은 열한 번째 기부지로, 지역에 하려는 대표의 의지가 이어지고

> 서 대표는 "지역을 직접 찾아 다 니며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며 "각 지역이 지닌 소중함을 다시 느 끼게 되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방 식으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 했다.

> >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번암면, '찿아가는 행복 만리길' 행사 개최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6일 봉화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찾아 가는 행복 만리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문화·상담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복지프로그램 으로, 번암면 주민 9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개별 문진 을 통한 영양수액 처방 △귀반사 건강관리 △ 편백팔찌 만들기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번암면을 비롯해 번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수군노 인장애인복지관, 장수군가족센터, 장수군자원 봉사센터, 장수군보건의료원, 남원의료원, 전 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13개 민·관 기관 이 협력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번암면은 행사성 지원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복지서비스 발굴 및 사후연계 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가을철 에너지 절약 방법











JBT)

〈一事一言〉



전북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김관춘 논설위원

전북에 사는 청년 대부분은 결 혼과 출산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 는다. 오히려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이 72%, 자녀는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문제 는 '의지'가 아니라 '조건'이다. 결 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와 주거, 양육의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 그 마음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전북연구원이 도내 20~44세 청 년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 식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청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 여준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 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 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지 만, 그 뒤를 이은 응답은 '주거비 용 부담(27.9%)'과 '만족할 만한 일자리 부족(26.0%)'이었다. 이는 결혼 상대를 만나도 결심하기 어 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청년 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음을 시사

출산 인식에서도 상황은 크 게 다르지 않다. 자녀를 갖는 것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이 70.1%에 달했지만, 미혼 청년 중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 했다. 그 이유로는 임신·출산·양 육의 어려움(21.8%), 양육·교육 비 부담(16.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7%)이 꼽혔다. 결국 결 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세 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세대'로 만들어버린 것은 불안정한 일자 리와 높은 주거비, 그리고 돌봄의 공백이다.

전북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 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종합대책

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22.1%)'과 '높은 주거비 부담 (14.5%)'을 지적하며, 그 대책으 로 '안정적 일자리 확충(20.4%)', '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 육 병행 지원(15.7%)'을 요구했 다. 이는 단순한 경제지원이 아니 라, '삶의 기반'을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쳐온 출산장 려금이나 결혼지원금 중심의 단 편적 정책으로는 저출생의 구조 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조사결과 를 토대로 ▲청년의 결혼 접근성 제고 및 관계 형성 지원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기반 마련 ▲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 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생식 건강 및 임신·출산 지원체계 강 화 ▲성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등 5대 정 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이라는 숫자를 높이는 것 이 아니라, 청년이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 구정책이 아니라 청년정책, 노동 정책, 주거정책, 그리고 지역정책 의 통합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격차 속 에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주 택 확충, 보육 인프라 확장 등 지 이 절실하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 결혼. 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다. 전 북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제조·농 식품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 는 고임금·고숙련 일자리가 부족 하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명 확하다면, 그에 맞는 산업정책으 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과 원격근무 기반 확충,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으로 '지역 안 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 들어야 한다.

주거 문제 또한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북 은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낮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체감은 다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전세보증금 마련조차 버거운 청 년에게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 다. 전북도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확 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 선도 병행돼야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제도상 보장되어 있 어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 로자에겐 여전히 먼 이야기다. 돌 봄 공백을 메워주는 공공 보육시 설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남성 의 육아참여 지원이 병행될 때 비 로소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의무' 나 '국가 요구'로 여기지 않는다 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질의 문제로 인식 된다. 따라서 "왜 결혼하지 않는 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를 묻 기보다 "어떤 조건이라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물 어야 한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 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출산율 수치 를 높이려는 단기적 성과주의에 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이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진짜 저출생 해법이다. 결혼 은 개인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의 배경에는 사회 전체가 만 들어낸 환경이 있다.

청년이 "결혼하고 싶지만 못 한 다"고 말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미래 또한 함께 늙어갈 수 밖에 없다. 청년층은 결혼·출산 을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왜 하지 않는 가'가 아닌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를 드러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초기부터 결혼과 출산 및 양 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의 청년정책은 이제 선택 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속 가능 한 전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 출생 극복의 출발점이다.

전북 고용정책의 새 이정표, 새만금 고용특구

새만금이 미래산업 중심의 '통합형 고 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한 지 1년여 만에,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고용 모델 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제64조에 근거해 새만금이 고용특구로 지정된 이후, 올해 3월 출범 한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7개 월 만에 취업 연계 183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당초 목표를 22% 초과 달성한 이 수치는 단순한 고용 통계를 넘어, 새 만금의 산업 전환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시례 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이차전지·모빌리 티·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등 미래산 업이 집적된 1~9공구를 중심으로 운영 된다. 과거 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지역 산업구조가 급속히 첨단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인력수급의 불균 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산 업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고용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인 재를 산업현장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구직자 발굴부터 취업 연계, 고용유지와 복리후생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서만 105명의 취업 성과를 거둔 것은 새 만금이 전북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원단은 찾아가는 상담소·현장 면접 매칭데이 등을 운영해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 결,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확장하고 있 다.

고용 안정성 강화 노력도 주목할 만하 다. 지원단은 10월 말 기준으로 106명에 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10개 기업에 복리후생을 지원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했다. 기업 간담회, 고용정보망 구축, 상시 매칭 서비스 등은 기업의 인 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고 용센터·새만금개발청 등과의 협력체계 도 활발히 가동되며 지역 고용 네트워크 가 탄탄히 구축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성과의 '지속성'이다. 새 만금 고용특구가 단기적 채용성과에 머 물지 않으려면 산업정책과 정주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 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근로 자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순환 고용 생태 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전북 도는 내년도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토대 로 기업 맞춤형 고용정책을 강화하고 교 육·주거·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 를 내야 한다.

새만금은 이제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 어 '미래형 일자리 실험장'으로 거듭나 고 있다. 산업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시대일수록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 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델이 중요하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기업 투자와 인재 육 성, 지역 정주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 한 고용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지방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타가 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 금이 산업전환 시대의 선도적 고용특구 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ㅣ특별기고ㅣ

후지산의 타타미 바위



점이 있 다. 누가 필자에게 인생 전 환 점 을

필자는 주저 없이 국비유학생

불어, 전북대 교수로 근무하던 2002년 일본 과학재단 초청 교 수에 선발되어 동경대 의대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꼽을 것이다.

고 있던 우리나라와 다르게 당시 일본은 찬란한 황금기를 구사하 고 있었다. 일본이 생산해 낸 자 새어가곤 했었다. 동차, 전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과 같은 첨단 제품은 세계 시장에 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이노우에 교수에게 일본은 정말 일본 사람의 자부심은 가히 하늘 을 찌를 듯 하였다.

GDP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이었다. 산업기술도 일본은 미 국을 추월해서 일본 기업은 미국 기업을 압도하고 있었다. 과학기 술 또한 마찬가지여서 일본은 수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사람은 이미 추월해 버렸었다. 그래서 그 깊은 대화를 이어갈수록 이노우 메이지 유신이 남긴 환영의 덫에 누구나 인 무렵 수많은 미래학자는 이구동 성으로 21세기는 일본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동경대 의대에 구비된 최 첨단 연구 장비와 설비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구경하기 힘들 정도였다. 우람찬 나무가 고풍스 묻는다면, 러운 건물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동경대 캠퍼스에 압도되었던 필 에 선발되어 미국에서 석·박사 자는 실험실을 구경하면서 각종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와 더 최첨단 연구 장비가 완벽하게 구 비된 연구 환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동경의대에서 필자는 세계적으 로 유명한 의학유전학 대가인 이 노우에 교수와 서로 통하는 면이 2000초 IMF 외환위기로 신음하 많아 매우 가깝게 지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우에노 술집에서 여러 이야기로 수많은 밤을 새하얗게

당시 일본의 국가경쟁력과 대 학의 연구 환경에 압도된 필자는 대단한 나라라고 감탄조로 말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말에 이노우 그 무렵 일본의 1인당 GDP 규 에 교수는 홍 교수 자네는 일본을 모는 세계 최고이었었고, 국가 잘 몰라서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 각하겠지만, 사실 일본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

> 에 교수의 말에 필자는 처음에 당 혹스러우면서도 의아하였지만,

에 교수의 깊은 고견에 공감할 수 밖에 없었다.

1868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다. 짧은 기간에 전근대 국가에서 세 계 주요 열강으로 도약하였다. 메 이지 유신의 주도 세력인 사쓰마 번과 조슈번 사무라이들은 사심 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 자기희 생과 더불어 서구의 과학기술, 사 회제도, 법률 체계 등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하여, 당시 일본에 맞는 최선의 국가 시스템을 탄생 시켰다.

아닌 내부의 자각에 의해 후진적 국가에서 세계열강으로 갑자기 국가가 도약한 경우는 일본의 메 이지 유신이 유일하여, 메이지 유 신은 세계 수많은 역사학자를 포 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사쓰마번과 조슈번 사무라이들이 닦아 놓은 메이지 유신 덕분에 일 본은 순식간에 과학기술을 포함 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1세기 컴퓨터가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노우 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국가 발전 고 있을 것이다. 의 기회로 삼은 국가도 있었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된 일본은

갇혀 변화를 거부하다가 21세기 에 들어 국가 전체가 추락해 버렸

그래도 일본은 한때나마 세계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다음 추락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은 세계 정상은커녕 겨우 선진국 문턱을 살짝 구경하다가 벌써 추 락하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추락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빨라 현재 우리는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고 있다. 특 히 전북은 대한민국 타지역에 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부가 해 사돈 남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중앙정부에서 전북의 발전에 쓰 라고 배정한 연구개발비를 측근 중심 개판으로만 집행하여 전북 발전에 재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대마초 사업이라는 황당무계한 함한 인문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 사업에 조 단위의 거금을 투자하 고, 음주운전 전과 3회를 포함해 전과 5범인 사람을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에 과감 히 발령 내버리는 김관영 같은 사 람이 도지사로 있는 현실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다.

오늘 세계인들은 후지산의 이 끼 낀 타타미 바위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 로운 혁신이 시작되었다. 급변하 고 있는 전북인들에 끌끌 혀를 차

/전북대학교 미생물학과 홍성출 교수

소 오늘의시

가을 저녁의 시 / 김춘수

누가 죽어 가나 보다 차마다 감을 수 없는 눈 반만뜬채 이저녁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롬 속에서 물 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누리 위에 스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 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시인 약력: 1922년 경남 통영 출생.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했다. 마산고에 재직하던 1946년 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경북대와 영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81년 민정당에서 전국구 의원을 하다 정계에서 은퇴한 뒤 시인과 평론가로서 활동했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 출간을 시작으로 '산악(山嶽)', '꽃을 위한 서시' '부다페스 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1958년에 한국시인협회상, 1959년에 아시아 자유문 학상을 수상했다.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인후지사 010-8640-6855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인구 순유입 전환 성공!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민선8기, 정주인구 감소세를 반전 시키고 합계출산율 상승, 생활인구 확장 등 인구정책 전반 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 증가는 김제 시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육아 정책,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혁신적 접근까지 김제시가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김 제의 인구정책을 살펴보자. 〈편집자 주〉





#통합시출범이후(1995년) 처음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민선 8기

년 평균 1,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 왔 업단지 기반 정착, 주거 지원, 귀농·귀촌 중·고등학생 대상 청년드림카드(3~5만 구감소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 선 8기 출범 이후 강력한 인구대응 정책 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이러한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81,586명의 인구를 기 록하며, 민선 8기 출범 당시인 2022년 6 월 말 80,861명 대비 725명 증가하는 의 미 있는 반등을 이뤄냈다.

전환된 첫 사례로, 김제시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과 실행력이 실제 수치로 입 기당 30만원)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증된 성과다. 이와 같은 전환은 특히 청 김제는 통합시(1995년) 출범 이후 매 년층, 외부 전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산 인프라 확충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한 결과로 분석된다.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으로 전입·정착 유도

시는 인구정책의 핵심을 '생애주기별 지원'에 두고, 전입·결혼·출산·양육까지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출산장려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지 원하고 있으며, 결혼축하금(1,000만원), 이는 정주인구 순감에서 순유입으로 전입장려금(1인당 20만원), 이사비 지원 (세대당 30만원), 대학생 생활안정비(학

가 주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원)와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3년 연속 출산율 상승 …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강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 는 가운데, 김제는 3년 연속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 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0.91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19명, 2023년 1.37명, 2024년 을 구축했다.

민선 8기, 정주인구 반등 합계출산율 상승 생활인구기반확산등가시적성과

1.14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0.75명) 대비 1.5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 축하용품(45만원 상당), 다자녀가정 양육비(월 10만원, 최대 60개월), 아이돌 봄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 시민증'을 발급받고 김제시민과 동일한 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생활인구 50만시대 준비 …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본격 추진

시는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객, 단기 체류자, 외국인 등 실제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을 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새로운 돌파 구를 마련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없 이도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활동하는 인구로, 최근에는 정주 인구 이상의 도시 활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생활인구의 중요성 을 반영해 2024년 10월 '김제시 생활인 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적 기반

이와 함께 김제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평선생명도시 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김제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김제에 관 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제시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지역 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김제시를 찾는 비정주 인구의 체류 만족도와 지역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공을 위한 지역 내 가맹점 30개소를 공 개 모집 중이며, 음식·숙박·체험 등 다 양한 업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해 생 활인구 유입 플랫폼을 민관 협력형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는 현재 약 33만 명 수준의 생활인 구를 중장기적으로 50만 명까지 확대한 다는 목표 아래, 시민제도 기반의 플랫 폼 운영, 가맹점 네트워크 확충, 시민참 여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적인 유입 전

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92억 확보 · · · 지역 활력 회복의 기폭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 시는 산후조리비(최대 100만원), 신생 제시민제도'를 도입해 2025년 7월부터 해, 총 29개의 인구활력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해당 기금은 정주여건 개선, 청 년·가족정착, 생활SOC확충, 자연친화 놀이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 대표 사례인'김제시 폐양조장 로컬재 디지털 시민증을 소지한 생활인구는 생 프로젝트'는 유휴 공간을 청년창업 과 문화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사업으로, 가맹점 할인, 관광·체험시설 우대 등 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 현재 김제시는 시민제도 참여 혜택 제 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해 인구 활력 증진 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정주인구 반등과 합계출산율 상승은 김제형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데이터 기반 전략, 협업 중심 행정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 평선 생명도시 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